

의재 허백련 동상 앞에 웬 ‘친일파 단죄문’?

시, 광주 상징 조형물 삼켰다며 미술관에 있던 동상 학동삼거리로 옮겨서정주 시인이 쓴 시비 있다는 이유로 작년 동상앞에 친일 단죄문 설치의재 선생 친일행적 한 것으로 오인…“광주시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광주시 동구 학동삼거리에 있는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6) 동상 앞 친일파 단죄문이 논란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동상 우측 앞에 세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서정주’ 단죄문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이 친일파인지, 아니면 동상 자체가 친일파인 서정주 동상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진도출신의 의재 선생은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종화의 대가로 불린다. 일생 동안 꾸준히 작품활동을 한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경험을 기반으로 후진양성과 사회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가운데서도 연진회(鍊眞會)발족은 호남지역 전통화단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재 선생의 동상은 선생이 타계한지 3년이 지난 1980년 7월 후학들의 모임인 연진회가 주축이 돼 건립했다.

동상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불굴의 한국인상’을 제작한 故 김영춘 작가의 작품으로, 동상 앞에 의재 선생 업적을 기린 시비는 연진회의 부탁으로 그와 친분이 있었던 서정주 시인이 작성했다.

시비의 글씨는 ‘윤봉길 열사 기비비’, ‘백범 김구 선생 묘비’, ‘유관순 기념비’ 등에 글씨를 남긴 서단의 거장 故 김충현 선생이 썼다.

당초에는 광주시 동구 학동 의재 창작스튜디오(구 연진미술관)내에 설치돼 있던 것을 2010년 광주시의 요청으로 현 위치로 옮겼다. 당시 광주시는 문화예술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의재 선생을 기리는 도로인 ‘의재로’(학동삼거리~중심사

3.7km)의 초입에 동상을 설치하길 원했고 결국(재)의재문화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아 이설하게 됐다.

광주시는 이에 학동삼거리에 소공원(609㎡ 규모)을 조성하고 화단과 바닥분수, 소나무 숲, 학조형물 5종 등을 설치하고 의재로 중간에 있던 동상을 이전해 시민 및 외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의재 선생 동상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설 11년만인 지난해 8월 의재 선생 동상 앞에 친일 단죄문을 설치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친일잔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일제 잔재물을 청산한다는 명목이었다.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65개 일제 잔재물을 선정하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친일파 관련 시설에는 해당 인사의 검증된 행적이 낱날이 기록된 단죄문을, 일제 때 만들어진 신사나 산업 시설 및 군사용 지하 동굴 등에는 이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문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미당 서정주의 시비가 의재 선생 동상에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동상 바로 앞에 친일 단죄문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친일 반민족주의자 서정주’ 단죄문이라는 팻말을 달았지만 남종화의 거장이자 호남 사회계의 상징적 인물인 의재 선생이 친일 행적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광주1호선 학동중심사 입구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의재 선생 동상 앞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서정주’라고 적힌 단죄비가 자리잡고 있어 모르는 시민들은 이 동상을 서정주 동상으로 오인할



광주시 동구 학동삼거리 소공원에 있는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6) 동상 앞에 친일파 서정주 시인의 단죄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 왼쪽 아래는 서정주 시인이 쓴 시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할 경우는 의재 선생까지 친일파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일잔재 처리라는 성과에 휩쓸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족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재 선생의 유족인 허달재 의재문화재단 이사장은 “허백련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동상 앞에 친일 단죄문을 설치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보인다. 또 전체 동상에서 서정주 비문은 극히 일부분

이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반발이 심하다면 시비 자체만을 철거해 미술관에 보관하는 방법도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러한 문제의 민원을 제기받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문제가 되는 단죄문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일부에서는 단죄문의 위치만 동상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하다 트럭 추돌사고 2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가중돼 왔다”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5분께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마약 투약 태국인 3명 영장

원룸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동부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외국인 20대 후반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A씨의 원룸에서 지난 13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집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검거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자 3차례 투약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당시 투약에 쓰이는 흡입기구도 1개 발견됐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들은 비자가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후산단 잇단 폭발 사고…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시급

여수산단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노후산단에서의 잇단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해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가정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여수시의회에서는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산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화학사고감시단체인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일과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발제에서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사고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산단에서의 화학사고는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 국장은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며 “또한 환경부의 2014년~2019년 통계를 보면, 화학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로 가장 높았다. 노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1967년 조성된 여수산단의 경우 산단이 노후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20건의 안전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 3공장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8명의 작업자 중 4명이 사망했다.

현 국장은 이날 법률가 검토를 거쳐 단체가 마련한 노후설비 특별법 초안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

옛 여친 찾아가 소란 30대 구속

옛 여자친구의 집앞 유리를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광주경찰청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연립주택 공동현관 유리문을 야구방망이로 깨뜨려 약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해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과 향만 등 공공일반시설물처럼 노후산단 안전 책임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갖자는 취지다.

일과건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은 이날 공개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통해 오는 6월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운전면허 취소 소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옛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음주조사후 다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화침에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 술집과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2차례 불구속 입건된 점과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화정아이파크 붕괴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동바리 임의 해체’ 놓고 원청·하청·감리사 서로 책임 떠넘겨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붕괴 원인이자 책임 소재를 가르는 쟁점으로 떠오른 ‘동바리 임의 해체’를 두고는 원청과 하청, 감리사 등 3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모(49)씨 등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천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하청중 동바리(지지대)를 임의 해체한 뒤 감리사도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벽보)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우선 검찰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4가지 사고 원인 중 동바리 해체를 제외하고는 ‘주의의무 위반이 곧바로 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과관계 증명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또한 동바리 해체의 경우 자식들은 모성을 보였다.

가천 측은 데크 플레이트 시공 등 일부 작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구조 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다르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가천 측은 또한 동바리 해체 작업의 경우, 원청 주장과 달리 현대산업개발 측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즉 원청사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감리업체인 광장 측은 “동바리 해체는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워낙 상식이라서 작업자들이 무단 해체 후 공사를 이어갈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들 재판에 들어갈 때는 사법부는 법정에서 열리며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57881	1	여수시 허문정1길18, 3동 7층 709호 [문수동,홍화아파트] 84.96㎡	아파트	183,000,000	183,000,000
2021타경 58042	1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284, 103동 13층 1309호 [청솔아파트] 56.400㎡	아파트	102,000,000	102,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1타경 6911	1	고흥군 풍양면 고덕리 711-1 159㎡ 고흥군 풍양면 축두길 123 단층 65.64㎡ 제시와 참고 등 9.4㎡	대 단독주택	31,167,800 31,167,800	일괄매각,제시와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6522	1 2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816 315㎡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817 314.9㎡	대 대	104,895,000 104,895,000	
2021타경 6577	1	광양시 광영동 산36-29 131㎡	임야	18,733,000	경계측량요
2021타경 6621	1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산161 14975㎡	임야	38,935,0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21타경 6744	1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산134-1 49587㎡	임야	89,256,600 89,256,600	
2021타경 6799	1 2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82-2 536㎡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604-1 922㎡	전 답	6,432,000 15,72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6,432,000요
2021타경 6911	2	고흥군 풍양면 고덕리 573-10 456㎡ [연고미상분묘소재,수목포함]	전	8,74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8,746,000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6911	3 4	고흥군 풍양면 고덕리 1687 605㎡ 고흥군 풍양면 고덕리 1889-9 1455㎡	전 답	13,179,115 24,735,000	토지만매각,제시 외건물매각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24,735,000요
2021타경 56091	1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419-2 511㎡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5,339,000	토지만매각,제시 외건물매각제외
2021타경 57292	1	보성군 회천면 영현리 613-1 317㎡	대	7,500,000	토지만매각,제시 외건물매각제외
2021타경 57506	1	보성군 문덕면 문곡리 산118-21 871㎡	임야	28,117,887	일괄매각,지분매 각,공유자우선매 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7629	1	통소 산118 111045㎡ [물건번호1:공유자임재남4/116지분전부, 연고미상분묘소재]	임야	28,117,887	각,공유자우선매 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7629	1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420-15 1517㎡ [공유자이광열1/4지분,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제외비닐하우스등있음]	답	12,136,000	토지만매각,지분 매각,공유자우선 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58158	1 2	광양시 전상면 비평리 산224 10512㎡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산82-1 66645㎡ [김경숙1/3지분전부, 연고미상분묘소재]	임야 임야	12,614,400 12,614,400 33,157,500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1회로 제한
[자동차,중기]					
2022타경 50281	1	사용본거지:여수시 흥민공원길 21-1, 2층 [억충동] 등록번호 :22루1809 차량:제네시스 연식:2015	자동차	14,500,000	모판:순천시서면 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상사[061-721-3900]
[기타]					
2021타경 6850	1	선착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 대성호 어선번호:2001006-6461305 선박:앨트,알,피 총톤수:9.771 기관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 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전수년월일:2020년1월23일 제시의제외치여엄허가권 연면복합,연안차량	선박	396,489,000 396,489,000	모판:여수시국동항 [대선선박], 어업허가권포함,의정통포함,엔진부품중EOW[엔진파트를유지]가있어서들을걸수없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금에 매각대금에 사용한다. ② 공유자 우선매수권[단상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10%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각기일 : 2022. 6. 7. [화] 10:00 4. 매각결과발표기일 : 2022. 6. 14. [월] 16:00 5.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회경매법정 6.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한 기밀입찰방식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반점]에 해당하는 금액이든 공표가격 발행의 자기앞영수 또는 현금 증빙서류가 지급보증서류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개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자우선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보증금의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입찰신청자 중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가격 및 대금납부 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간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월만까지 통상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대이자, 비공통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다시재 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전환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기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상권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합서 및 등록세영수증등 서류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변환을 기한만 상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자, 소유자 또는 해당채권자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된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신회주의 등기와 더불어 살청된 날로부터 만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이 없어야 한다. ② 산청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청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청문고를 하지 않으므로 권리보전 계사란의 공고나 법원에 반한 매각물건영세서 등을 참조하여야 함이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1차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음된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④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된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검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만 법률상 제정하고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명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음으로, 관공이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는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한 매각물건영세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함이다.	
--	--

2022.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정보과 신영민